

2019년도 하반기 동호회 행사 일자 확정

골프대회 9월 17일(화)
등산대회 10월 23일(수)
송년모임 12월 12일(목) 5시

골프대회를 비롯한 금년도 하반기 동호회의 행사 일자가 확정됐다.

골프대회는 9월 17일(화)에 춘천 오너스 CC에서 열린다.

9월 27일(금)에 열리는 낚시대회 장소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등산대회는 9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우이동 아카데미하우스 종점에서 출발해 솔밭공원을 거쳐 우이동 종점까지 걷는 북한산 둘레길 코스에서 열린다.

낚시대회 9월 27일(금)
바둑대회 10월 30일(수)

회장배 쟁탈 바둑대회는 10월 30일(수) 오전 9시 A, B조로 나뉘어 사우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작년에 걸렸던 송년모임이 올해는 12월 12일(목) 저녁 5시에 열리며, 장소는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다. 사무처는 식사와 선물 준비 등을 위해 참석할 회원들의 사전 신청을 받는다.

각 동호회 행사와 송년모임에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들은 (02)722-7416 또는 (02)789-3820으로 미리 미리 신청하시면 된다.

발전기금을 내주신 분들(7월 20일 이후)

- | | | |
|---------------------|---------------------|----------------|
| ▶ 차인태(사우회장) 1,000만원 | ▶ 文廣會(회장 황귀철) 100만원 | |
| ▶ 이낙용(보도) 100만원 | ▶ 조강래(업무) 100만원 | ▶ 유혜자(편제) 50만원 |
| ▶ 신형창(보도) 30만원 | ▶ 강철호(편제) 30만원 | ▶ 백하현(관리) 30만원 |
| ▶ 한숙동(편제) 30만원 | ▶ 정수열(편제) 20만원 | ▶ 최정숙(편제) 20만원 |
| ▶ 윤남현(대전) 20만원 | ▶ 조동호(관리) 20만원 | ▶ 이용우(관리) 20만원 |
| ▶ 문성수(관리) 20만원 | ▶ 유시복(관리) 20만원 | ▶ 박진석(기술) 20만원 |
| ▶ 권명안(관리) 20만원 | ▶ 손진우(편제) 20만원 | ▶ 박순성(관리) 20만원 |
| ▶ 김부영(보도) 20만원 | ▶ 김택곤(보도) 20만원 | ▶ 구자걸(기술) 20만원 |
| ▶ 박한성(관리) 20만원 | ▶ 정호식(편제) 10만원 | ▶ 박태지(업무) 10만원 |
| ▶ 강복주(대전) 10만원 | ▶ 안영순(관리) 10만원 | ▶ 서상웅(편제) 10만원 |
| ▶ 박해선(대구) 10만원 | ▶ 김조곤(편제) 10만원 | ▶ 김종진(편제) 10만원 |
| ▶ 마동익(관리) 5만원 | ▶ 배성룡(광주) 5만원 | |



차인태



황귀철



이낙용



조강래



유혜자



신형창



강철호



백하현



한숙동



정수열



최정숙



윤남현



조동호



이용우



문성수



유시복



박진석



권명안





아름다운 동행 좋은 친구
목포MBC

경화 바다야

매주 화요일 밤 10시 5분

생방송 전국시대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5시 25분 ~ 6시 25분



회비와 발전기금계좌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되며,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쓸 예정입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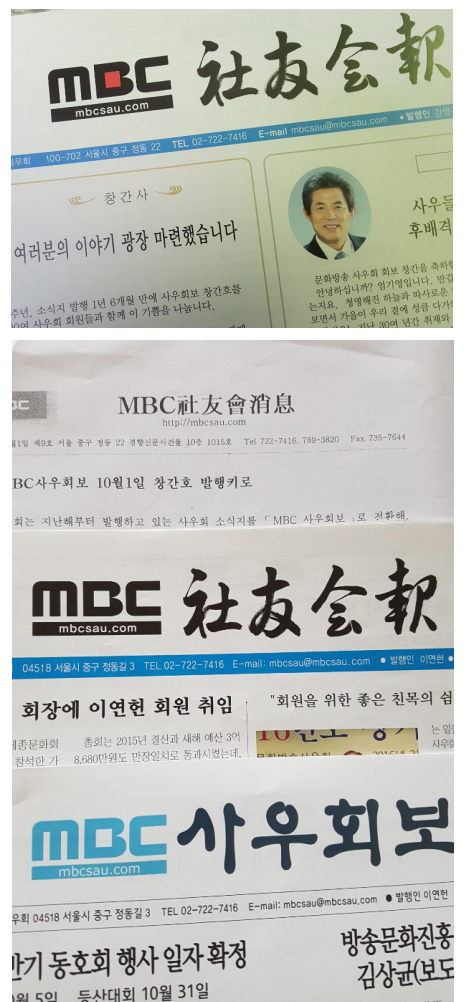
사우회보 발간 10주년을 맞다

사우회보가 창간 10주년을 맞았다. 1990년 사우회가 창립됐지만 ‘社友會 消息’이라는 이름의 회보 형태가 처음 선보인 것은 한참 후인 2008년 4월이었다.

‘社友會 消息’은 2009년 10월에 제9호를 끝으로 막을 내리고, 2009년 10월 15일 8면 짜리 ‘mbc社友會報’ 창간호가 발행됐다. 3개월에 한번 발행되던 사우회보는 2012년 9월 13호부터 격월로 발행하고 있다.

서예가 유희근(보도) 회원의 글씨였던 한자漢字 제호는 2016년 9월 제37호부터는 한글 제호로 바뀌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회보는 한번에 1,700부를 인쇄하고, 국내 회원과 미주 회원, 전국 MBC를 위시한 언론사 사우회 및 언론관계 단체 등에 보급한다.

각 부문별 편집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사무처 리포트

‘황학정’ 가 보셨나요?



이 석 일
(사무처장)

사우회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처장을 맡고 보니 아무래도 회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젊음을 바쳐 일했던 MBC를 뒤로 하고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틈나는 대로 회원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보기로 했다.

황학정黃鶴亭은 인왕산 동쪽 기슭 언덕 위에 자리한 궁술 연습을 위한 사정이다. 그곳의 이름을 따서 세운 식당 ‘황학정’ 역시 서촌 입구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다.



겉으로 보서는 허름하지만 입구를 들어서면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가 눈에 띈다. 20년전에 반응섭(관리)회원이 처음 시작했지만 지금은 사촌 동생 윤남현(대전)회원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 윤 회원은 1970년 대전MBC에 입사해 제작부 등에서 근무했었다. 식당에 대전MBC 로고가 새겨진 시계가 걸려 있는 까닭이다.

황학정을 대표하는 메뉴는 돌솥밥이다. 그 밖에 간장게장, 소고기 장조림, 황태구이, 떡갈비, 각종 나물 등도 손님들의 입맛을 다시게 하지만, 정작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부인

이 자신 있게 권하는 메뉴는 된장찌개다.

자신이 손수 담근 된장으로 끓였기 때문이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을 쓰려면 최소한 월 4백만 원을 줘야 하고 그러려면 월 매출 천만 원을 올려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주방은 부인 몫이 됐다.



다행히 부인의 조리 솜씨가 손님들의 칭찬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흡사 가정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는 분위기를 맛볼 수 있다.

예약 없이 황학정을 불쑥 찾아갔다가는 100% 딱지다. 요즘 같은 불황에도 비교적 잘 견딜 수 있는 이유를 윤 회원은 ‘예약’과 ‘단골손님’이라 했다.

예약을 받아야 내방객의 규모를 파악하고,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 경제적인 일뿐 아니라 식당 입장에서는 음식 쓰레기 처리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격은 다른 집보다 좀 비싸지만, 먹어 본 손님들의 불만은 여태 들어 본 적이 없다. 식당이 위치한 장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곳의 단골손님은 종합청사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많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곳을 찾았던 분도 여럿이다.

입맛이 까다로운 고위 공직자가 이곳을 자주 찾는 이유는 언제 와



윤남현씨 부부

도 변하지 않는 음식 맛 때문이다.

1950년생인 윤 회원은 ‘이제는 식당을 접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수입에 비해 들이는 품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하는 사람을 쓰지 않고 70대 부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기에, 얼마 전에 식당을 팔려고 내놔지만 아직 입자가 나서지 않아 하루하루 힘들게 부부가 꾸려가고 있는 중이다. 8월에 칠순을 맞은 그는 사우회가 드리는 칠순 축하금을 발전기금에 보태라고 기부했다.

입맛 잃기 쉬운 요즘, ‘어디 괜찮은 식당 없나?’하시는 회원님들, 맛으로 승부하는 ‘황학정(02-723-6793)’으로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약은 필수!

경·조사

■ 팔순 ■

육창웅(편제) 40.10.7 인우삼(편제) 40.10.14 변웅전(ANN) 40.10.15
박창신(보도) 40.10.20 최희택(기술) 40.10.28 전정익(관리) 40.11.14
김성호(편제) 40.11.16 이화욱(업무) 40.11.17 강 건(춘천) 40.11.23
이정일(미주) 40.11.27

■ 고희 ■

이걸범(편제) 50.10.1 나일수(관리) 50.10.16 김창수(기술) 50.11.18

■ 결혼 ■

이영호(대구) 아들 8.3 조상휘(보도) 아들 8.31 김명철(기술) 딸 9.7
윤창호(편제) 아들 9.7 심원택(보도) 딸 9.21 전미경(편제) 아들 9.21
노승화(편제) 아들 10.6

■ 부음 ■

김영일(보도) 배우자상 7.17 오정훈(관리) 장모상 8.1
이동한(관리) 모친상 8.5 이주갑(편제) 모친상 8.6
강병문(편제) 배우자상 8.7 이인용(보도) 모친상 8.13
김경원(관리) 모친상 8.20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조상휘(보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56 (마두동, 강촌마을2단지아파트)

■ 연회비 ■

7월:

황학구('19) 이재원('18~19) 오명균('19) 박태지('17~19) 윤종옥('21~23)
육창웅('19) 이준호('19) 이원형('19) 김충남('18~23)

8월:

장영배('17~18) 장정기('18~19) 박해선('19) 김건영('17~18) 오순심('19)

■ 평생회비 ■

조상휘(보도) 8.7

번호 / 주소 변경

편제 : 이인규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58번길 78
오문환 서울 서초구 방배동 856-19
이한철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65길 21
진경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776-86,
박명호 경기 양평군 서종면 중미산로
김건영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223번길 47

보도 : 임동훈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01

기술 : 이우철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45 (가락동, 헬리오시티)

업무 : 이태림 충남 공주시 웅진절골3길 38

관리 : 이민애 양천구 목동서로 280
윤주혁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 126-1
이종숙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34길 120
손원록 서울 강동구 천중로49길 58
강인숙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96길 21-24

ANN : 이연한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111

대 구 : 박해선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3길 19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원호(관리)
향년77세,
1970년 총무국 경리부 입
사, 감사국장, 경영이사.
1996년 안동MBC 사장 역
임. 7월 15일 숙환으로 별세
했다.



전병욱(관리)
향년70세,
1985년 총무국 입사. 차량
부 근무. 1998년 명예퇴직.
7월 28일 심장마비로 별세
했다.



정판식(부산)
향년72세,
1966년 부산MBC 입사.
경영국장, 광고사업국장,
건설본부장 역임. 2005년
퇴사. 9월 3일 췌장암으로
별세했다.



좋은 사람 좋은 커피
ARISTA COFFEE

아리스타는 언제나 신선하고 깊은 맛의
에스프레소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타커피는

자연에서 얻은 최상의 아라비카 원두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카페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신선한 주스와 샌드위치 등
프리미엄 원재료를 1일 1배송으로 다양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동/정



조기양(보도)

7월 31일부터 15일간 ‘푸에르토리코 청소년 한류 문화탐방단’ 26명을 인솔해 MBC를 비롯한 한류문화 근거지와 경주, 안동의 전통문화유산 견학을 안내했다. 조기양 회장이 현지 ‘한글학교’를 통해 인연을 맺은 ‘청소년 방문단’은 2015년부터 매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



박홍영(편제)

9월 2일 CBS TV에서 방송된 다큐멘터리 “예수쟁이 정진경”을 기획부터 구성, 대본, 촬영, 편집까지 3개월 동안 혼자 해냈다. 故정진경 목사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과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개신교 원로목사로 2009년 9월 3일 소천했다.



배수한(관리)

삼성생명 태평로 법인지점 법인영업부에서 1팀장으로 제2의 인생을 이어가고 있다. 퇴직연금, 개인 재무 컨설팅(자산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분야에 대한 현장 경험이 적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다.



이종현(편제)

재미在美 사업가 김동구씨가 출연한 기금으로 설립한 자선재단법인 D.K. KIM FOUNDATION의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재단은 교육, 문화예술, 복지혜택으로부터 소외된 국내외 이웃들에게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다.

최성금(관리)

여름방학 성수기에 키자니아를 찾은

동/호/회/소/식

인사동클럽(회장 이진세)

라디오PD들의 모임인 인사동클럽은 9월 2일(월) 12시 반에 프레스센터 엠바고룸에서 올해 3분기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편일평, 유혜자, 박병선 회원 등 총 12명의 선후배가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특별한 안건은 없이 회원들의 안부와 근황을 서로 주고받았다. 다음 모임인 ‘송년회’는 과거 인사동 시절의 추억도 되살리고 경비를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 낙원동에 있는 ‘능라밥상’에서 12월 2일 갖기로 했다.

청죽회(회장 이종구)

썩수 달 첫째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는, 시설부문에 근무했던 회원들의 모임인 청죽회는 8월 1일(목) 종각 옆 ‘종로삼계탕’에서 만남을 가졌다. 60여명의 회원 중 15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회원들은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묻는 화목한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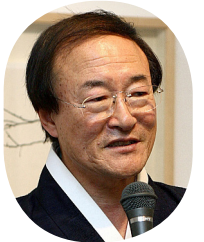


고객들이 연일 ‘매진’을 기록하자 사무직과 현장직 등 700여 임직원 전원에게 현금 만원이 들어있는 ‘만원 사례’ 봉투를 돌렸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치킨과 음료,



과일 등 간식을 선물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효진(보도)

발칙하게도 나는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담배를 입에 댔다. 방학이 되면서 강변에 소를 몰고 나가 풀을 뜯기는 날이 많았다. 그때 내 조무래기 동무들이 ‘풍년초’라는 잎담배를 신문지 조각에 말아주며 피어보라고 했다. 다들 뼈끔뼈끔 잘도 피웠다. 제법 어른처럼 보였다. 부럽기도 했다. 나도 눈물 콧물을 흘리며 어른 흉내를 냈다.

드디어 고1때 사건이 터졌다. 조 회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느닷없이 소지품검사를 했다. 내 가방에서 ‘사슴’이란 열 개비들이 작은 담뱃갑이 나왔다. 선생님은 펑 냉정했다. “너 같은 놈은 퇴학이야. 때릴 것도 없어.” 냉정한 선생님은 나를 데리고 교장실로 갔다.

내 성적표까지 들고 교장 선생님께 가서 나를 인계했다. 교장 선생님도 냉정했다. “공부도 잘하는 놈이 담배는 왜 피워. 퇴학이야. 아버지 모시고 와.” 온기라곤 없는 세상 같았다. 모두가 싸늘했다. 나도 울

지 않고 집으로 갔다. 공부할 시간에 가방을 들고 집으로 오는 나를 보고 놀란 아버지께 나도 냉정하게 말했다.

“교장 선생님이 아버지 오시래요.” 아버지가 몇 번 까닭을 물으셨지만 나는 입을 꼭 다물고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두루마기를 입고 학교로 가셨다. 아버지는 소학교 교사로 계시다가 해방 후 교직을 내놓고 고향을 지키고 계셨다. 그래서 학교 돌아가는 일을 대개는 알고 계셨다. 저녁 늦게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나는 내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 눈치를 살폈다. 아버지도 냉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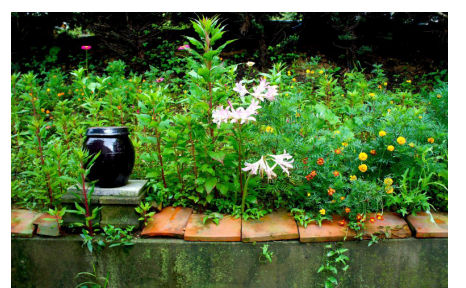
“걱정 말고 내일부터 학교에 가거라. 교장 선생님이 용서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는 말이 튀어 나올 뻔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아버지와 한 상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밥을 씹는지 풀을 씹는지 맛을 알 수 없었다.

이튿날은 학교 작은 운동장에서 조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교장 선

생님 훈화시간이었다. “내가 교직에 35년을 있었는데, 당신 아들을 퇴학시켜 달라는 학부모는 처음 만났다. 1학년 학생 하나가 담배를 피워서 퇴학을 시키겠다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학생이 퇴학당할 잘못을 저질렀으면 퇴학처분을 내리시는 게 당연하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식을 입학시킬 때 사람을 만들어달라고 서약서를 썼으니 어떻게든 제 자식 놈을 사람을 만들어서 이 나라에 유용한 인재로 만들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주시지 않고 내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 그러시면 내년에 다시 입학시험을 쳐서 입학시키겠으니 그때라도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이러더라 이놈들아! 내가 이런 분을 처음 만났다!” 박관수 교장 선생님은 대구사범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가르친 은사로 경북대 교수로 계시다가 우리학교 교장으로 와 계셨던 분이다. 우리학교에 계실 때도 세계도덕재무장기구 총재를 맡고 계셨다. 후에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로 가셨다.

지금부터 60여년 전 얘기다. 내



가 그때 퇴학을 당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나라에 유용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자신은 없지만 기회는 앞으로도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을 버리는 결정을 내릴 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 나는 그 후 담배를 끊었지만 그때 담배를 피우지 않던 많은 사람들 중엔 지금 골초가 돼서 개인은 물론 국가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다.

특하면 남을 세상 밖 죽음으로 내모는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을 생각한다. 교장 선생님한테 ‘못난 자식을 퇴학시켜도 좋으니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니 이제야 눈물이 주르르 나온다.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도 지금 내 걱정을 하고 계실 것이다. 아버지!

아타튀르크와 호치민



윤영관(편집)

터키를 여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만나는 이름이 '아타튀르크'다. 어느 도시든 가장 큰 도로의 이름은 '아타튀르크도로'다. 터키의 신 공항이 생기기 전까지 제1공항은 '아타튀르크공항'이었다. 곳곳에 그의 동상이 있다.

'아타튀르크'는 누군가? 『무사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터키의 초



대 대통령이다. 오스만투르크가 1차 대전 때 독일의 편에 섰다가 패망하자 오스만투르크는 붕괴됐고 연합군은 이스탄불을 점거, 터키마저 해체시키려고 했다. 그때 터키를 구한 이가 아타튀르크다. 아타튀르크는 '튀르크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아타튀르크는 참으로 많은 일을 했다. 무엇보다 지금 쓰고 있는 터키문자(라틴문자)를 사용하게 했다. 여성에게 참정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줬다. 그리고 여성들이 히잡 쓰는 것을 금지했다. 정교본리를 강력히 시행해 이슬람과 정치를 분리시켰다.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원수처럼 생각한다. 가장 합리적으로 이슬람을 개혁해 이슬람 국가 중 터키가 제일 개방적이다. 아타튀르크는 자식을 두지 않았다. 그는 사후에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



아타튀르크 터키 대통령

납했다.

아타튀르크는 15년간 터키를 통치하면서 나라의 기초를 다졌다. 보수적이고 근본 원리주의적인 이슬람과 정치를 분리시킴으로써 터키인들은 종교의 사슬에서 벗어났다. 터키인들은 아타튀르크를 가지(Gazi)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2012년, 호치민 국영TV의 초청을 받았다. PD들에게 방송제작 강의를 해달라고 했다.

5일간 그들에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성공요소"와 "휴먼 스토리텔링 제작에 관하여"를 강의했다. 한국어를 베트남어로 통역하는 과정을 거쳐 강의는 이뤄졌는데, 놀

랄 정도로 베트남 PD들은 열심이였다. 강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호치민은 왜 성공한 지도자인가?"를 강의했다.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 귀를 쫑



호치민 베트남 대통령

곳 세웠다.

1973년 3월, 미국은 월남에서 발을 뺐다. 기나긴 전쟁에서 물러섰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전쟁을 치른 것이다. 타임지는 Cover Story에 호치민 특집을 다뤘다. 기사 제목은 "The Victor"였다. 호치민에게 '승리자'라는 호칭을 선물했다. 승리자 호치민은 베트남에서는 "박호 호치민(호치민 아저씨)"로 불린다. 친근함의 표시다. 호치민은 대통령궁을 두고 정원사의 오두막집에서 살았다.

타이어 고무로 만든 신발을 유품으로 남겼다. 그는 자식이 없었고 자신의 유산이 하나도 없었다.

박호 호치민과 가지 아타튀르크, 지도자의 영원함과 국민의 사랑에 다 이유가 있다.

(회)스토리가 있는 사진

1975년 'MBC여성살롱'이란 이름으로 임국희ANN가 처음 방송을 시작해서 1988년 봄 '여성시대'로 변경, 이종환이 단독 진행하다가 1990년부터 남녀MC가 함께 진행했다.

남자MC는 봉두완, 변웅전, 정한용, 김승현, 전유성, 이덕화, 송승환, 강석우 등이, 여성MC는 이효준을 시작으로 손 숙, 1999년 양희은이 여성시대의 아이콘으로 등장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MBC 표준FM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처음에는 주부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근래 들어 남녀 구별없이 중장년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됐다.

2005년 방송30주년을 맞아 '30살의 여성시대'라는 행사를 개최했고, 2015년 서경석이 양희은과 호흡을 맞춰 진행을 하게 되면서 프로그램 이름도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로 바뀌었다.

오전 9시 5분부터 10시까지 1부에선 청취자들이 보내주는 사연을 읽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요일에 따라 게스트를 초청해 정보 등을 소개한다. 세상사는 이야기들을 소화하는 MC들의 능력 특히 양희은의 사연 소개가 뛰어나다.

목요일에는 '남성시대'를 편성해서 군대 시절 사연을 소개하는 '장 용의 단결필승충성' 코너를 진행한다.

매월 방송된 내용을 정리해 '월간 여성시대'라는 책자를 만들어 IBK 기

업은행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다. 봄이면 '신춘 편지쇼'라는 이름으로 주제에 맞는 사연을 모집해 시상하고 있다.



임국희의 여성살롱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기



김종길(편제)

에 올라앉은 얼룩이(길고양이)에게 ‘개 똥’인 생선을 전달하는 일은 ‘내 똥’이다.



아랫집 ‘산채이야기’식당의 고양이 얼룩이는 새끼에게 줄 생선을 하루에도 열 몇 번씩 윗집 식당인 우리 집에서 가져간다. 소리 없이 우리 식당 창틀에 올라와서 아내가 주방에 있는지를 확인한 뒤 생선을 줄 때까지 뚫어지게 주방을 응시한다. 아내와 눈이 마주칠 때까지 막 무가내로 기다리는 수법으로 매번 마리당 천 원씩 하는 조기를 얻어가는 얼룩이의 모성애에 번번이 아내를 혀를 차면서도 내주고 만다. 어떤 날은 10마리를 넘게 가져갈 때도 있다.

창틀 아래 뜨락에는 고양이와 개라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수준의 막내딸이 겨울에 길냥이들의 물과 사료를 보온할 목적으로 구해놓은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가 있다. 지금은 치웠지만, 추울 때 길냥이들 자고 가라고 종이 박스도 군데군데 놓아두어서 식당입구 좌



우 난간에 고양이 숙소가 준비했다. 아내는 안방의 CCTV로 이웃 고양이 떼가 와서 먹이를 먹고 노는 것을 보느라 TV 프로그램은 시청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웃집 강아지와 고양이들에게도 사료와 특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공덕으로 막내딸이 나타나면 그렇게 사나운 개도, 조그만 인기척에도 숨어버리는 고양이 새끼까지도 다 국빈처럼 격하게 반긴다.

2007년, 인생이란 게 뜻대로 흘

건 등 전 주인의 황당한 돈 요구로 송사에 휘말리며, 퇴직금 중간정산, 집 담보대출 등등 거의 1년 동안 영업은 시작도 못

한 채 고난의 행군이 계속됐다. 경



집은 가히 동물농장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험도 없고 생소했던 시골의 요식업. 처가 동네인 충남 예산 수덕사 인근에서 탈도 많고 자연도 많았던, 산채나물을 주 메뉴로 하는 식당 <성일산채>를 그렇게 시작한지 벌써 13년이 됐다.

3층짜리 건물의 1층은 식당 영업을 하고, 2층은 주거용, 3층 옥상에는 막내딸이 슈나우저 4마리

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해였다. ‘절반씩 투자해서 되팔면 수익이 난다’는 부동산중개업자

지인을 믿고 선뜻 선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막상 계약이 끝나자 ‘투자를 못하겠다’는 지인 탓에 난생 처음 들어본 유치권과 영업허가 말소

와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사는 옥탑주택이 있다. 고양이 한 마리는 이웃집에서 막내가 얻어왔고, 또 한 마리는 채소 배달하는 아가씨가 억지로 맡긴 녀석이다. 개와 고양이 구역이 겹치지 않도록 옥상 절반지점에 철제 담장도 설치했다.

서울에서 키우다가 시골로 데려온 고양이와 흥성 장날 시장에서 팔다 남은 새끼 고양이를 떠맡다시피 가져온 고양이, 슈나우저, 닥스훈트, 진돗개, 푸들, 말티즈 등등에 길고양이들까지 평균 20마리 정도의 반려동물들과 함께 사는 우리

그러자니 사료 값도 만만찮고 병이 나서 동물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약을 타 와서 먹고 치료하는 것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특히 모기에 물려서 고질병인 만성 심장사상충에 걸린 닥스훈트는 동물병원에서도 포기하려는 것을 애원해서 입원시키고 살려냈지만, 평생 주기적으로 복수를 빼내주고 시간 맞춰 약을 먹고 살펴줘야 하는데, 힘들게 투병하는 강아지나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아내와 딸이나 곁에서 지켜보는 내 마음이 참 말로 안쓰럽기 그지없다.

오늘도 눈 뜨자마자 창틀을 지키는 얼룩이에게 아내가 내준 조기한 마리를 던져준다. 바닥에 닿기도 전에 낙아채서 물고 가는 그녀의 발걸음이 바람을 닮았다. 장마전선이 지나간 파란 하늘에 고추잠자리 몇 마리가 한가로이 익어가는 8월이다. 아내와 막내는 늘 푸른 바다처럼 일렁이고, 지켜보는 내 마음은 마른장마를 겪는 농부를 닮아 있다.



회갑 맛이 이탈리아 여행기



김 종 진(편제)

60년을 살았고 그걸 기념하고자 여행을 갔다. 회갑을 축하하기엔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졌지만, 그래도 아쉬운 맘에 뭐라도 하게 되는 건 보통사람에게 남아있는 조그마한 욕심일거다. 7월 7일, 12시간의 비행 끝에 현지시간 오후 6시 10분 랜딩.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니 세상의 나그네인 나도 한번은 이 길을 밟아야 하질 않겠나.

난생 처음 콜로세움을 마주했다. 서기 70년경 세워진 세계 7대 불가사의. 피로 물든 모래, 아레나Arena 위의 검투사들! 삶과 죽음 사이를 가르던 8만 로마 군상들의 함성! 로마 황제처럼 나도 엄지손가락을 쳐들어본다. '로마의 휴일'의 '오드리 헵번'이 생각나는 트레비 분수. 관광객들은 해신 트리톤 아래 연못으로 기꺼이 동전을 투척한다. 하루에 4~5백만원은 모인다니. 바티칸미술관. 벨벤테레 정원의 아폴로상 등 고대조각의 아름다움을 눈에 넣고 이어지는 통로의 천장과 좌우 벽에 채워진 벽화 작품들.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서자 미켈란젤로의 4년간의 걸작 '천지창조'. 그리고 피에타 조각상과 대성당의 중앙 천개 아래 사도 베드로의 무덤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신자인 내겐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었다.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의 갑작스런 폭발. 화산재는 인근



화산 폭발 희생자

13km까지 덮쳤고 해안을 2-3km나 밀어냈다. 시간이 멈춰진 폼페이 유적, 코를 잡고 쭈그러 앉아 죽은 사람, 누운 채 죽은 아이의 미이라 등 당시의 처참함이 느껴진다. 최고의 휴양도시 소렌토. 달콤한 향기가 가득한 예쁘고 좁다란 골목에 자리한 소렌토의 전통시장. 골목 양쪽엔 레몬사탕, 초콜릿 등을 파는 가게와 과일가게, 옷가게, 기념품 가게, 카페, 젤라또 가게. 시장 끝자락에 있는 자그마한 성당엔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휴양지 소렌토의 모습이다. 오후 2시 5분,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 카프리 섬을 향한 배가 서서히 움직였다. 30여 분만에 눈앞엔 우뚝 솟은 바위산이 자태를 드러냈다. 카프리 섬. 유럽 부호들의 별장지. 푸니쿨라레(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종턱에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정원'을 지나자 카프리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들어온다.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욕심을 낼 만한 곳이다.

3,300년의 역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오르비에토. 백포도주로 유명한 곳이다. 해발 156미터 언덕 위의 도시라서 종턱까지는 케이블카로, 그 위로는 미니버스를 이용한다. 슬로시티운동이 태동한 곳으로 교황님의 휴양처며 바티칸에서 쓰는 '오르비에토 와인' 생산지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한 곳은 피렌체다. 영어로는 플로렌스, 이탈리아어로는 피오레.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구 5만의 조그만 도시로 르네상스의 발상지다. 교황을 두 분이나 배출한 13~4세기 가장 부유한 메디치 가문. 어마어마한 부자 '코지모 데 메디치'의 후원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명사 안나 마리아 루이지 데 메디치는 마지막까지 피렌체에 모든 것을 기부했다. 이곳엔 갈릴레오, 미켈란젤로, 단테 등 유력인사들이 묻혀있는 산타 크라체 성당이 있다. 1299년에 만들어진 성당 앞 산타클라체 광장

한 쪽엔 탄생 500년을 기념해 세운 단테 동상도 있다.

'필리포 브르넬레스키'. 천재 건축가로 두오모 성당(꽃의 성모 마리아)의 돔을 만든 분이다. 무게 37,000톤, 벽돌 4백만장의 반원형의 지붕 큐폴라, 흰색을 기초로 연한 핑크색과 연녹색의 대리석을 이용하여 화려하게 꾸며진 르네상스식 외관과 조토의 종탑. 두오모 성당을 보러 일 년에 천만 명이 온다니 피렌체 사람들은 브르넬레스키의 덕을 토포하고 있다. 성당 앞에는 산 조반니 세례당이 있다. 3개의 문 가운데 동쪽문은 '천국의 문'으로 구약의 내용이 새겨진 아름다운 문인데, 이 문을 만든 기베르티는 평생 문 2개를 만들고 죽었다. 베키오 궁전 앞 '다비드像'이 눈을 끈다. 상,하체의 비율이 안 맞는 것



콜로세움 앞에 선 부부

은 원래 두오모 돔 꼭대기에 설치하려 했기 때문인데,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아 하기에 착시를 이용한 것이라고. 손등에 핏줄

등 섬세함에도 놀라울 따름이었다. 바로 옆엔 메디치가의 소장품인 보티첼리의 '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 등을 갖고 있는 유럽의 5대 미술관의 하나인 우피치 미술관이 있다. 유명한 온천지대인 몬테카티니 테르메에서 4~50분 거리에 있는 피사. '피사의 사탑'으로 알려진 곳이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입구에 서는 그리 커 보이지 않다가 막상 사탑 앞에 서니 생각 이상으로 웅장했다. 로마시대 이후 암흑의 바다가 된 지중해를 사라센으로부터 되찾아 온 강골 피사사람들. 그러나 3백년을 못 견디고 피렌체에게 패망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 수백 년에 걸쳐 갯벌에 백향목 말뚝을 박아 만든 100% 인공섬. 180여개의 운하들 사이를 오가는 곤돌라, 대운하를 관통하는 수상택시. 예전엔 물자와 인력을 나르는 수단이 이젠



베드로의 지하무덤

운치와 낭만이 됐다.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오물을 배출시킨 변기 효과, 갯벌의 자정작용. 운하를 뚫은 지혜가 놀랍다.

사계로 유명한 비발디가 이곳 베네치아의 고아원 음악선생이었으며 사제였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됐다. 마르코 성인의 유해를 모신 산마르코 성당. 높이 98.6m의 종탑. 외관만 보더라도 그 화려함은 대단했다. 성당 밑엔 120만개의 말뚝이 박혀 있다. 성당내부는 온통 금장(별칭이 황금의 성당)이다. 당시 베네치아의 부를 짐작할 만했다. 수상택시를 타고 1,200년의 역사가 담겨있는 3.8km에 이르는 대운하 투어를 했다. 베네치아 건축물의 전시장. 산타 마리아 델라 살테 성당을 시작으로 페기구젠하임 뮤지엄, 유명 인사들의 별장, 호텔, 4개의 다리들...저마다 간직한 스토리들. 특별히 지붕에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는 두개의 집은 나폴레옹, 처칠과 관련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시에나 대성당을 보는 행복한 시간이다. 성당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벽은 녹색을 띤 검은 대리석과 흰색 대리석의 스트라이프 무늬로 특별했다. 성당 내부는 예술의 보고. 고딕 양식의 스테인드글라스, 우아한 등불이 달려있는 돔, 화려함의 극치 피콜로미니 도서관과 프레스코화들, 발이 닿는 곳 모두 작품인 눈부신 대리석 바닥. 그중엔 이탈리아 건국신화인 늑대의 젖을 빠는 로물루스와 레무스도 있다. 270년 동안 짓다 보니 건축양식은 로마네스크에서 고딕으로 바뀌었고,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반박에 못지않고...

8면에 이어집니다.

어떤 인연



박기병(관리)

올해 88세. 米壽의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손꼽히는 유통 회사 '전자랜드'의 그룹 홍보 상임고문으로 바쁜 나날을 보낼 수 있으니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행복하다.

전자랜드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1991년 봄 춘천MBC 사장으로 있을 때다. 전자랜드 홍보철 회장이 춘천에 매장 점포를 짓기 위해 직접 건설현장에 나와 첫 삽을 뜰 때,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내가 현장을 목격하고 '이제 춘천에도 큰 사업체가 하나 오는군'하는 반가운 생각에 보도국 담당자에게 취재하도록 한 뒤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998년. GTB강원민방 창립

을 주도할 당시 자본금 160억 원을 모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3%인 5억 원이 모자라 고심하고 있을 때 생각난 것이 전자랜드였다. 그러나 '강원도와 별로 인연이 없는 전자랜드가 과연 주주로 참여해줄까'하는 생각에 망설임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만나나 보자'고 찾아갔는데 예상 밖으로 홍 회장은 반갑게 맞아줬다.

나는 '강원민방을 창업하는데 자본금 모금이 어려워 도움을 받고자 찾아뵙게 된 것'이라고 방문 이유를 솔직하게 밝혔다. 그러자 홍 회장은 서슴없이 '몇 %나 하면 될까요? 한 10% 정도면 되겠소?'라며 시원스럽게 답했다. 의외의 반응에 당황한 나는 "죄송하지만 한 5%(약 8억원)정도면 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라며 전자랜드를 GTB강원민방의 창업주주 대열에

흔쾌히 참여시켰다. 이렇게 홍 회장 덕분에 GTB강원민방 창업은 순탄하게 마무리됐다. 전자랜드가 GTV강원민방의 주력 주주로 등재됐지만 내가 사장으로 재직하는 3년 동안 방송사 관계로 홍보철 회장을 따로 만나 본 일은 거의 없었다.

강원민방을 퇴직하고 언론단체 일에 관여할 때인 2013년 2월 어느 날, 뜬금없이 홍 회장으로 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나?'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으니 '어떻게 지내느냐'고 근황을 묻고는 '의논할 일이 있으니 내일 오전 10시 회사에서 만나자'는 것이었다. 다음날 오전, 용산에 있는 전자랜드 회장실을 찾아갔더니 홍 회장은 반갑게 맞아주며 직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난 뒤 단도직입적으로 '홍보 관련 업무를 맡아 달라'고 했

다. 당황한 내가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홍 회장은 홍보업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침을 피력했다. 생각지도 않던 전자랜드와의 인연은 이렇게 엉겁결에 맺어졌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다. 올해 2월, '나이도 많고 하니 그만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건강하신 동안 계속 좀 수고해 달라'는 회사 측의 답변에 어쩔 수 없이 홍보업무에 열심히 매달리고 있다. 돌이켜 보면 내가 일을 썩 잘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회사가 80 고령인 나에게 거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로 여기까지 왔다. 사우회원 여러분, 행여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은 접으시고 기회만 있으면 최선을 다합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자전문 양판점, 소비자 브랜드 파워 1위에 빛나는 전자랜드 만세!

7면에서 계속

이번 여행의 마지막 장소, 아시시 Assisi로 향했다. 고대와 중세가 혼재되어 있으며 프란체스코 성인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곳. 탁 트인 움부리아 대평원을 내려다보며 산타키아라 성당을 만났다.

프란체스코 성인의 첫 여성제자 산타키아라를 기리는 성당. 분홍색과 흰색이 교차된 단아한 아름다움.

특이하게도 부벽이 있고 내부엔 프란치스코수도회와 가난한 키아라 수녀회의 천년의 아이콘인 '산

다미아노 십자가', 성 키아라의 생애를 그린 프레스코화, 지하엔 성녀와 프란치스코의 유품들.

아시시 중심부엔 그리 넓지 않은 꼬무네 광장이 있다. 로마시대의 흔적인 포럼과 목욕탕 유적, 기원전 1세기에 지어진 미네르바 신전(지금은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교회로 사용)을 보고 골목골목을 걸으며 아시시의 고요함을 즐겼다.

마주치는 수도사들, 수녀님들과 나눈 가벼운 목례가 더욱 정겨웠다.

아시시의 랜드마크인 '산프란체스코 대성당' 너른 잔디마당 앞에 섰다. 하부성당과 지하 프란체스코 성인의 유해를 모신 석관 그리고 상부성당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신자들과 관광객들로 성당은 인산인해다. 천장과 벽의 화려한 무늬와 프레스코화도 좋았지만, 미사에 참석해 성체를 모시는 은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했다.

지난 8일 동안 보았던 아름답고 한가로운 전원풍경, 파란하늘의 조

각구름, 내 발길이 닿았던 골목들, 잠시잠시 쉬었던 광장들, 올려다보는 눈길을 고정시켰던 그 많은 탑들, 화려한 그림과 예술품들을 품었던 성당들과 건축물들, 경이로웠던 물위의 도시, 아름다운 바닷가 휴양지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든 이탈리아의 선조들...

지나는 산위엔 여지없이 마을이 있고 거기엔 종탑이 랜드마크처럼 솟아있는 곳. 이탈리아는 새로 사귄 애인이 됐다.

MBC 사우회 협력기업

달아트투어
추천 여행상품

크루즈 여행
장강삼협 크루즈
중국문화기행

● 국내 최초 한/중/일/러 4개국 / 11만 4천톤 급 세레나호

10월 8일 인천항 출발 | 한/중/일/러 특별 전세선 8일 | 1,980,000원 부터~
인천항 - 상해 - 나가사키 - 블라디보스톡 - 속초항

10월 15일 속초항 출발 | 한/중/일/러 특별 전세선 6일 | 1,780,000원 부터~
속초항 - 블라디보스톡 - 사카미나토 - 부산항

● 중국 장강삼협크루즈 5일 (물길 따라 떠나는 동양의 산수화)

매주 화,토요일 출발 (NO팁/NO음선/NO쇼핑) 1,590,000원 부터~
아시아나 항공이용 / 인천 - 충칭 - 장강삼협크루즈 - 의창 - 고속열차

● 경향신문 북경특파원 8년, 홍인표 고려대 교수와 함께하는 중국문화기행 3일

1일차 항주/서호 영은사 | 2일차 소흥/노신 왕희지 유적 | 3일차 소주/호구 절정원 | 980,000원 부터~

품격과 감동을 추구하는 여행기업
(주) 달아트 투어

